



## 목자들의 경배

조르주 드 라투르(1593-1652), <목자들의 경배>, 캔버스 유화, 107\*131cm, 루브르 박물관, 파리

이 작품은 촛불만이 빛나는 실내 정경을 묘사한 것이 특징인데, 작품 전체적으로는 단순미와 명상적인 평온함, 그리고 고요함이 돋보입니다. 그림은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 주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구원의 소식을 확인하게 된다는 루카 복음 2장(2, 8-20), 예수님의 탄생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긴 불꽃은 그림의 황금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 1/3 위치에서 수직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손이 불꽃을 가리고 있어 눈부심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이 모두를 비출 정도로 충분히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는 바로 이러한 빛의 힘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비추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포대기가 이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기 예수님이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주변 인물 중에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직접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빛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 성인은 빛과 어둠 사이에 놓여 있지만 그 역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콧수염이 있는 목자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보다는 조금 약하고, 검은 옷을 입은 목자는 비록 얼굴이 어둡게 보이지만 밝은 미소를 머금고 있어 따스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어둠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붉은색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붉은 옷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즉 작가는 성모 마리아에게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회색과 검은색 그리고 갈색으로 목동들의 옷과 여인의 옷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찬란한 색과 흐린 색,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연결은 그림의 공간에 리듬을 주고, 더 극적으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따스한 색으로 구성되어, 예수님 탄생의 뜨거운 열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촛불을 향해 있고, 요셉 성인의 시선은 촛불과 동시에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촛불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수직으로 길게 뻗은 촛불은 대를 이어 계승된 하느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목자들(두 남자와 한 여자)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 신비로운 사건(예수님의 탄생)에 몰입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진지한 시선은 보이는 것(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증거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모 마리아 곁에는 어린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은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양은 순결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양이 구유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구유 속 아기 예수님의 몸이 서로 교차되어 십자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을 가져 오시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쪽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이로써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그림을 보고 있는 나(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는 구유 곁에 앉아 있는데,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 온 목자들도 같은 높이에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존경하여 공손히 절함)하는 자세입니다. 목자들 중 한 남자는 모자를 한 손으로 붙잡고 인사하면서 왼손에는 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약기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목자들이 음악으로 경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곁에 있는 여자는 어떤 단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 여인이 봉헌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그림 쪽 반원에는 그림의 인물들이, 그림 바깥쪽 반원은 우리의 자리로 비워져 있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은 우리 반대편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는 이쪽에서 나머지 원을 채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이 그림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시선과 동작(성모 마리아의 가지런히 모은 두 손)들을 통해 우리도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끌고, 바깥쪽 반원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호 「가톨릭 디다케」 '그림 보고 교리 보고' (글·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 참조  
※ 퍼즐 그림은 「가톨릭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 자료방 → 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